KOSIF 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

국회의원 양이원영

한국 석탄금융 1년의 변화와 나아갈 길

2021 한국 석탄금융 백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www.kosif.org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은 2007년 사회책임투자(SRI)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SRI 연구 · 개발, 홍보 · 확산, 정책개발 · 입법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환경 대응을 확산하기 위해 CDP 한국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외 TCFD, PACF, SBTi, RE100, EV100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에 확산시킴으로써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국회의원 **양이원영**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www.yangyi.kr

양이원영 의원은 21대 국회 비례대표로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이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구책임위원직을 겸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양이원영의원실은 본 보고서의 토대가 되는 공적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석탄금융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 제공했다.

2021 한국 석탄금융 백서
한국 석탄금융, 1년의 변화와 나아갈 길

보고서 작성: 김태한, 이다연, 권정현, 이종오
디자인: 화소

목차

발간사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02
양이원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회의원 03

본문

Executive Summary 04

한국석탄금융, 1년의 변화와 나아갈 길
석탄금융 현황과 기후금융 정책 08

탄소중립과 금융
금융기관의 탄소중립목표 이행과 석탄금융 12

금융기관의 석탄자산 리스크
금융기관 석탄자산 익스포져 분석 14

금융의 탄소중립과 2030 로드맵
금융기관 석탄자산 금융배출량 및 재무건전성 영향 16

한국 석탄금융 트렌드 20
한국 석탄금융 순위 22

부록

1. 설문조사 및 분석 방법론 26
2. 공적금융기관 석탄금융 현황 27
3. 민간금융기관 석탄금융 현황 28
4. 탄소중립 목표 및 재생에너지 투자 현황 30
5. 탄소중립 및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32

Disclaimer

© 2021 KoSIF All Rights Reserved. 본 보고서는 양이원영의원실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본 자료에서 제공되는 정보, 데이터, 분석 보고 및 의견들은 KoSIF 고유의 자료이고 복제 · 배포가 금해져 있으며 오로지 정보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사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탈석탄 금융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도 2018년 최초로 탈석탄 선언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1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탈석탄 대열에 동참하였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탈석탄 금고와 탄소중립 금고의 고안,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식, 석탄금융백서 발간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탈석탄을 유도해 왔습니다.

"탈석탄 금융은 이제 탈화석연료 금융으로 확대되고 탄소중립 금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촉구합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 합의'Glasgow Climate Pact는 석탄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phase-out로 명시한 초안이 비록 중국 및 인도 등의 반대로 단계적 감축phase-down으로 후퇴했지만, 역대 최초의 합의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COP26 기간 중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석탄발전소를 매입하여 조기에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에너지전환 매커니즘'Energy Transition Mechanism, ETN을 발표했습니다. 야심찬 계획입니다.

탈석탄 금융은 이제 탈화석연료 금융으로 확대되고 탄소중립 금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유럽투자은행 등 39개 국가 및 다국적 개발은행은 석탄은 물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투자를 2022년까지 중단하자는 선언문을 발표했고, 전세계 450개 이상(운용자산 130조 달러)에 달하는 금융기관들은 COP26 기간에 탄소중립금융연합GFANZ에 동참했습니다. 참여 금융기관들은 2050년까지 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을 포함한 넷제로Net-Zero 달성하고 2030년까지는 50% 감축을 서약하였습니다.

탈석탄 금융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도 2018년 최초로 탈석탄 선언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1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탈석탄 대열에 동참하였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탈석탄 금고와 탄소중립 금고의 고안,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식, 석탄금융백서 발간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탈석탄을 유도해 왔습니다. 특히 공적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석탄 중독의 실체를 드러내주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두 번째 '한국 석탄금융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및 관련 기업의 익스포저exposure는 2020년 6월말 67조원에서 2021년 6월말에는 86조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 PF 대출과 채권 등의 만기일 분석을 통하여 석탄자산 익스포저를 분석한 결과, 1.5도 제한을 위한 선진국의 석탄발전 폐쇄시점인 2030년에도, 개도국의 폐쇄시점인 2040년에도 익스포저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2021년부터 2050년까지 PF와 회사채로 인한 국내 금융기관의 누적 자산포트폴리오 배출량은 10.4억 tCO_2e로, 2018년 기준 국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배에 달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석탄자산'을 유지한 채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관련 대출과 채권 자산은 추가적인 연장만 하지 않는다면 2050년 이전에 소멸됩니다. 이는 노력하지 않아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은 2050년이 아닌 2030년에 맞추어 집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2030년 이전에 석탄 등 화석연료 자산을 조기에 철회하거나 상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기존 투자금 철회 의향을 밝힌 국내 금융기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10년'decade of action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누가 적극 행동하느냐, 그 진정성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회의원

2021년 11월, 제26차 UN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는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통한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합의했습니다.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을 명시한 이번 합의는 기후대응에서 석탄과 화석연료의 감축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규투자 중단을 넘어 기투자된 석탄금융, 더 나아가 온실가스 다배출 자산에 대한 해소방안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40여개 국가와 함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선언에 서명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현실화에 따라 ESG와 탄소중립은 세계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제사회의 위기의식과 대응도 날로 강화되고, GDP 세계 10위의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책임 또한 날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책임의 이행을 위해 지난 8월,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이 법제화된 것입니다. 또한 COP26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40%까지 상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석탄금융 전수조사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은 이러한 시시각각 변화하는 흐름에 과연 우리의 정책과 금융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1년 동안 많은 것이 변화했습니다. 지난 석탄금융백서 발간 당시 18개에 불과했던 탈석탄 선언 금융기관은 1년만에 100개로 크게 늘어났고, 일부 금융기관은 탈석탄을 넘어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기존 자산포트폴리오의 배출량을 점검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해의 석탄금융백서는 ESG금융의 표준으로 ‘탈석탄’이 자리잡게 한 큰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진한 부분도 많습니다. 지난 해 59.5조원 가량이었던 석탄금융지원의 누적규모는 올해 74.9조원으로 한 해동안 약 15조원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위험자산규모도 67.9조원에서 86조원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공적 금융기관들은 정부정책 수립이 미비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탈석탄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탄소중립목표 수립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금융기관들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석탄금융은 자연스레 소멸할 것으로 예측하고 신규투자중단이라는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는 것 또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금융의 특성상 약정된 금액의 집행이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앞으로의 상황에, 금융기관의 탈석탄선언이 늘어났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기도 합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규투자 중단을 넘어 기투자된 석탄금융, 더 나아가 온실가스 다배출 자산에 대한 해소방안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과학적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SBTi)는 금융기관의 탄소중립 목표 수립에 반드시 1.5℃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2030년도 목표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동참한 국내 금융기관은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의 3개사에 불과합니다. 탈석탄, 더 나아가 탄소배출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더 나아가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의 조기철회, 조기상환까지도 폭넓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금융의 역할은 산업, 경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길잡이와 같습니다. 금융이 고탄소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가고, 탈탄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걸친 산업 전환을 지연하고,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올해의 백서 발간이 석탄금융의 1년간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요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금융의 역할, 그리고 이에 맞는 올바른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백서 발간작업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노고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탈석탄, 더 나아가 탄소중립을 향한 금융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점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노력에 함께하겠습니다.

Executive Summary

74.9조원: 2009 – 2021. 6 누적 석탄금융지원 규모 (주식제외)[1]

공적금융기관, 석탄금융 Top 10 (단위: 억원)

1	국민연금	*98,499*
2	수출입은행	*53,666*
3	무역보험	*46,680*
4	우정사업부	*11,578*
5	산업은행	*5,997*
6	새마을금고	*5,356*
7	중소기업은행	*1,243*
8	사학연금	*1,000*
9	교직원공제회	*700*
10	공무원연금	*500*

민간금융기관, 석탄금융 Top 10 (단위: 억원)

1	삼성화재	*82,903*
2	삼성생명	*46,985*
3	DB손해보험	*35,291*
4	흥국화재	*31,835*
5	현대해상	*30,454*
6	코리안리재보험	*29,532*
7	농협생명	*26,910*
8	하이투자증권	*25,195*
9	롯데손해보험	*22,565*
10	흥국생명	*19,276*

탈석탄금융 선언 및 탄소중립 목표 수립

◥ 탈석탄금융 선언, ESG금융의 출발점으로 정착

– 석탄발전 관련 신규 PF, 채권 투자 중단 선언 기관 수: 100개 (2020년 6월: 18개)

◥ 기존 석탄관련 자산에 투자 철회 로드맵 수립 기관은 드물어

– 석탄발전관련 자산 철회계획 응답 기관 수: 4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AIA생명보험, 하이투자증권)

◥ 금융기관 탄소중립목표 수립증가, 목표 수립 시 금융배출량도 반드시 포함해야

– 탄소중립목표 수립 금융 기관 수: 14개 (공적금융: 2개 / 민간금융: 12개)
– 금융 배출량[2] 포함 탄소중립목표 수립 기관 수: 8개 (공적금융: 0개 / 민간금융: 8개)
– 탄소중립목표 수립 계획 금융 기관 수: 21개
–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의 투자대상이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기후리스크 관리의 핵심 넷제로 관련 글로벌 금융이니셔티브에서는 금융배출량 포함한 넷제로 목표 수립 권고

기후변화 금융이니셔티브 참여 금융기관

이니셔티브	금융기관 명
PCAF[3]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중소기업은행, DGB금융그룹, JB금융그룹, 한화자산운용
SBTi[4]	우리금융그룹, KB금융그룹, 미래에셋증권, SK증권, 신한금융그룹, DGB 금융그룹, 중소기업은행
NZBA[5]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중소기업은행, JB금융그룹

1. 금년 설문지 미응답 기관은 작년 데이터 사용
2. 금융배출량: 금융기관의 자산포트폴리오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3. 탄소회계금융협회(PCAF,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4.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 (SBTi,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5. 넷제로 은행 얼라이언스 (NZBA, Net-Zero Banking Alliance) 0.6기준 사용

금융기관 석탄자산 리스크 – 석탄자산 익스포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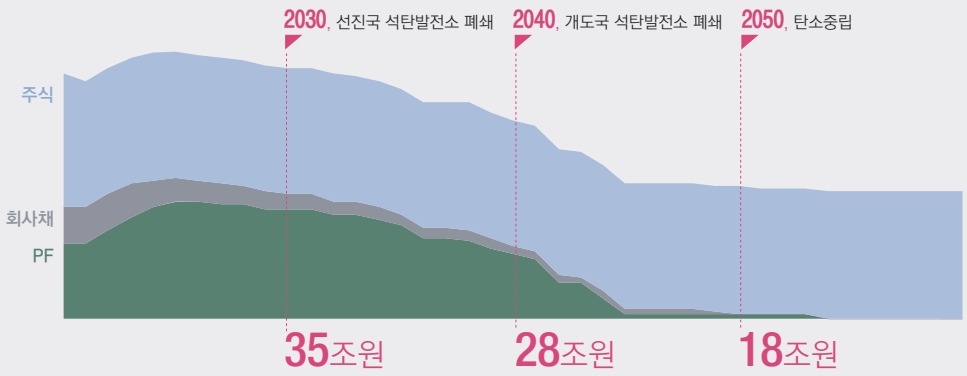
◥ 국내 금융기관 석탄자산 익스포져 규모는 86조원 (2021년 6월 기준)

- 공적금융 39.9조원, 경영권확보 목적으로 한국전력의 지분(약 17조원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전체의 45% 차지
- 민간금융 46조원 (손해보험 25.9조원, 생명보험 14.3조원, 은행 5조원)

◥ 2030, 2040, 2050 기준 미래 석탄 익스포져 분석

- 보험을 제외한 주식(지속보유가정), PF, 채권 만기일 기준으로 미래 익스포져 분석
- 2030년 익스포져는 34.6조원으로 2021년의 33조원보다 높았으며, 2040년에도 28조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 2030년 익스포져 가운데 국내 석탄발전관련 자산비중은 85%, 2040년은 97%

주식, PF, 채권 만기일 기준 석탄자산 익스포져 분석



2030 로드맵 제시 없는 금융기관 탄소중립목표는 무의미

◥ 석탄관련 금융배출량 2040년까지 높은 수준 유지 전망

- 2021년 석탄관련 금융배출량 4,423만tCO2e, 2040년까지 3,000만tCO2e 이상 유지하다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금융자산의 만기일 등을 고려하면, 2030년까지 화석연료 투자 지속해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금융기관의 탄소중립목표가 그린워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30년 로드맵을 함께 제시해야

◥ 금융기관 재무건정성위해서도 석탄 및 화석연료 자산 관리 적극 나서야

- IMF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세계 평균 온실가스 가격이 2030년까지 75달러에 도달해야 한다고 권고
- NGFS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한국의 탄소가격을 2030년 16만원, 2040년 30만원, 2050년 82만원 수준으로 전망
- 국내 금융기관이 PF를 제공하거나 회사채를 인수한 기업 또는 프로젝트의 2050년 누적 탄소비용은 1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가운데 150조원 가량은 2030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도 2030년 이전에 기존 보유하고 있는 석탄 및 화석연료 자산에 대한 조기 철회 또는 상환이 필수적

1. 익스포져(Exposure):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

Executive Summary

석탄금융 규모

누적 석탄금융 지원 규모

59.5조원 (2009 – 2020.6) **< 74.9조원** (2009 – 2021.6)

1. 투자대상지역 미공개 금액 제외

(단위: 조원)

구분		2021	2020
민간/공적	공적	22.5	22.1
	민간	52.4	37.4
지역[1]	국내	52.0	45.0
	해외	11.1	10.7
유형	PF	18.7	16.0
	채권	30.5	25.3
	보험(부보)	25.7	18.2

탈석탄금융 선언 기관

18개 (2020.6) **< 100개** (2021.6)

1. 은행만 별도로 탈석탄선언, 금융그룹차원의 선언은 하지 않음

	기관명	탈석탄 선언
공적금융	수출입은행	X
	산업은행	X
	기업은행	X
	국민연금	○
	무역보험	미응답

	기관명	탈석탄 선언
민간금융그룹	KB	○
	신한[1]	△
	하나	○
	우리	○
	농협	○

석탄자산 익스포져[1]

67.9조원 (2020.6) **< 86.0조원** (2021.6)

1. 익스포져(Exposure)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
2. 2020년말 총 자산 대비 비중

(단위: 조원)

순위	기관명	익스포져 규모	총자산대비 비중
1	산업은행	18.0	7%
2	국민연금	9.7	1%
3	삼성화재	6.7	7%
4	수출입은행	5.5	6%[2]
5	DB손해보험	4.9	12%

탄소중립 목표

0개 (2020.6) **< 14개** (2021.6)

	기관명	목표 수립
공적금융	수출입은행	○
	산업은행	X
	무역보험	미응답
	중소기업은행	X
	국민연금	X

	기관명	목표 수립
민간금융그룹	KB	○
	신한	○
	하나	○
	우리	○
	농협	X

누적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

28.2조원 (2009 – 2020.6) **< 30.9조원** (2009 – 2021.6)

1. 구 신한생명

(단위: 조원)

순위	기관명	익스포져 규모	총자산대비 비중
1	수출입은행	5.0	5%
2	산업은행	4.3	2%
3	교보생명	4.2	4%
4	신한라이프[1]	3.0	8%
5	삼성생명	1.8	1%

공적 금융기관

1. 금융배출량: 금융기관의 자산포트폴리오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2. 설문에는 탄소중립목표에 금융배출량 미포함으로 응답했으나, 추후 외부데이터로 확인
3. 금년 설문에 미응답, 전년도 자료(2020.6기준) 사용

22.1조원 (2009 – 2020.6) **<** **22.5조원** (2009 – 2021.6)

(단위: 조원)

기관명	석탄금융	탈석탄선언		탄소중립목표	
		신규	철회	목표	금융배출[1]
국민연금	9.8	○	–	X	–
수출입은행	5.4	X	X	○	○[2]
산업은행	0.6	X	X	X	–
중소기업은행	0.1	X	X	X	–
무역보험[3]	4.7	미응답			

은행

2.0조원 (2009 – 2020.6) **<** **5.8조원** (2009 – 2021.6)

(단위: 조원)

기관명	석탄금융	탈석탄선언		탄소중립목표	
		신규	철회	목표	금융배출
신한은행	1.4	○	X	○	○
BNK경남은행	1.4	○	X	X	–
국민은행	0.8	○	X	○	○
부산은행	0.7	○	–	X	–
농협은행	0.7	○	X	X	–

손해보험[1]

1.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석탄발전소 운영보험 특성을 반영하여, 손해보험은 발전소별 최초 계약연도 부보금액만 합산

18.7조원 (2009 – 2020.6) **<** **25.9조원** (2009 – 2021.6)

(단위: 조원)

기관명	석탄금융	탈석탄선언		탄소중립목표	
		신규	철회	목표	금융배출
삼성화재	8.3	○	○	X	–
현대해상	3.0	X	X	X	–
롯데손해보험	2.3	X	X	X	–
흥국화재	3.2	○	X	○	X
KB손해보험	1.1	○	X	○	○

생명보험

1. 올해 미응답, 작년 데이터 사용
2. 구 신한생명

15.1조원 (2009 – 2020.6) **<** **17.2조원** (2009 – 2021.6)

(단위: 조원)

기관명	석탄금융	탈석탄선언		탄소중립목표	
		신규	철회	목표	금융배출
삼성생명	4.7	○	X	X	–
농협생명[1]	2.7	미응답			
흥국생명	1.9	X	X	X	–
신한라이프[2]	1.5	X	X	X	–
한화생명[1]	1.2	미응답			

증권사

1.3조원 (2009 – 2020.6) **<** **3.4조원** (2009 – 2021.6)

(단위: 조원)

기관명	석탄금융	탈석탄선언		탄소중립목표	
		신규	철회	목표	금융배출
하이투자증권	2.5	X	○	X	–
한국투자증권	0.5	○	X	X	–
KB증권	0.4	○	X	○	○
하나금융투자	0.01	○	X	○	X

한국석탄금융, 1년의 변화와 나아갈 길

석탄금융 현황과 기후금융 정책

「삼척화력발전소, 회사채 수요 "0"」 2021년 6월, 삼척블루파워가 발행한 1,000억 규모 회사채 매수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전무했다. 9개월 전 완판을 기록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최근 석탄이슈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달라진 시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100개

탈석탄금융 선언
국내금융기관

| 탈석탄금융, 금융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아 |

석탄화력발전이 기후변화, 대기오염, 건강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에서 석탄화력발전과 관련하여, 금융의 역할과 책임에 주목한 것은 아주 최근 일이다.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며, 금융기관의 참여 없이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동안 금융기관은 석탄발전을 안정적 수익원을 인식하며,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권인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해왔다.

주요금융기관 탈석탄금융 선언 여부

KB금융그룹	산 업 은 행
신한금융그룹[1]	수 출 입 은 행
우리금융그룹	중소기업은행
하나금융그룹	무역보험공사
농협금융그룹	국민연금기금

하지만 최근 뜨거워진 ESG열풍과 함께, 석탄발전에 대한 시각도 극적 반전을 이루었다. 기후변화, 그 가운데서도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과 관련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ESG금융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다. 탈석탄은 국내 금융기관이 최근 ESG이슈 가운데서 가장 뚜렷한 성과를 보여준 영역이다. 2021년 6월 기준, 국내 100개 금융기관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신규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첫 번째 한국석탄금융백서가 발간된 1년 전(탈석탄선언 금융기관 수: 18개)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이다. 이제 '탈석탄'은 ESG금융의 시작점이자 표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공적금융 지원 중단 |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의 대출, 보험, 투자는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컨소시엄이 해외석탄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맡아왔다. 그동안, 국내외 환경단체의 지속적 문제 제기와 국회의 해외 석탄발전금지 4법[2] 발의 등에도 불구하고, 공적금융기관은 「OECD

1. 신한은행만 탈석탄 선언. 그룹차원의 탈석탄 선언은 하지 않음
2. 한국전력 및 국내 공적금융기관 해외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참여 및 금융제공을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무역보험법」, 「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지칭

석탄 · 기후금융 마일스톤

	2010	2015	2016	2017
석탄금융	• (2013) 세계은행, 석탄발전 금융제공 중단 선언	• (글로벌) OECD 해외석탄발전 금융지원 제한 합의	• (글로벌) OECD 수출신용기관 석탄양해 시행	• (글로벌) 탈석탄동맹(PPCA) 출범 • (글로벌) 노르웨이국부펀드(GPFG), 한국전력 투자금지 기업 지정
기후금융	• (2014) EU의회, 비재무정보보고지침(NFRD) 통과	• 국민연금법 개정 (글로벌) 기후변화재무정보 공개협의체(TCFD) 출범	•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 (글로벌) 녹색금융협의체(NGFS) 출범 • (글로벌) TCFD 권고안 발표

76개

탈석탄금고 도입기관 수

정부기관	5개
광역지자체	12개
기초지자체	45개
교육청	14개

수출신용기관의 석탄화력발전 지원관련 양해」[1]를 들어, 해외석탄발전 프로젝트 금융지원 중단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유지해 왔었다. 이번 선언은 국내 공적금융을 개발도상국 프로젝트에 대한 불참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자와9·10, 베트남 붕앙2 와 같이 최근 약정이 이루어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겠다는 점과 석탄발전소 이외의 화석연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더불어, 금융기관 또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탈석탄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민간금융권과 같이,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선언 및 세부정책 공개를 통해 추진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 탈석탄금고 도입 여부

서울	시청	교육청	부산	~~시청~~	교육청
인천	시청	교육청	대구	시청	~~교육청~~
광주	시청	교육청	대전	시청	교육청
울산	시청	교육청	세종	시청	교육청
경기	도청	~~교육청~~	강원	~~도청~~	교육청
충북	도청	교육청	충남	도청	교육청
전북	~~도청~~	교육청	전남	~~도청~~	교육청
경남	도청	교육청	경북	~~도청~~	~~교육청~~
제주	도청	교육청			

I 탈석탄금고,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이끌어 I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규제의 집행뿐만 아니라 시장참가자로서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2020년 국내 공공조달 규모는 약 176조원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정부의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조달과정에서 제품/서비스 또는 공급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는 국가 및 지방정부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도 마찬가지다. 6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은 금융기관의 가장 중요한 고객 가운데 하나다. 자금의 관리, 운용, 집행 등 전과정에서 금융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탈석탄금고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자금을 관리할 금고, 주거래은행, 전담은행 등을 선정하는 기준에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여부, 석탄금융규모 등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매커니즘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9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처음 고안했다.

2021년 11월 기준, 전국 76개 지자체, 교육청 등이 탈석탄금고를 도입했다. 탈석탄금고 선언 기관의 총 자금규모는 235조원이 넘었다. 19개 광역지자체 가운데서는 부산, 강원 등 5개를 제외한 14개 지자체에서 금고 선정기준에 석탄투자이슈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대구, 경북 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교육청이 탈석탄금고를 도입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환경부가 4대 수계기금의 운용사 선정기준에 석탄이슈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많은 민간금융기관이 탈석탄금고의 빠른 확산을 탈석탄금융선언의 주요 동기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1. OECD 국가 소속 수출신용기관의 석탄화력 발전프로젝트에 대한 신용제공을 금지하는 양해에 일부 예외를 두고 있음. 2021년 10월 CCUS 없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원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 (OECD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Annex VI: Sector Understanding on Export Credits for Coal Fired Electricity Generation Projects)

2018	2019	2020	2021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국내 최초 탈석탄금융 선언	• 충남도, 탈석탄금고 최초 도입 • DB손해보험, 국내보험사 최초 탈석탄금융 선언	• 국회, 해외석탄 금지 4법 발의 • KB금융, 금융그룹 최초 탈석탄금융 선언 • 서울시, 경기도, 탈석탄동맹(PPCA) 가입	• 정부, 해외 신규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 선언 • 국민연금, 탈석탄금융 선언 • (글로벌) UN COP26,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Phase-down) 합의 • (글로벌) 공적금융 화석연료 투자 중단 선언, 미국, 프랑스 등 39개 국가 및 기관 참여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 (글로벌) EU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발표	• 한국은행, NGFS 가입 •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환경부, 녹색금융 추진 TF 발족 • 환경부, TCFD 지지선언 • 녹색채권가이드라인 발표	• 112개 국내금융사, 기후금융 지지선언 • 금융위·금감원, NGFS가입 및 TCFD 지지선언 • 금융위,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발표 • (글로벌) 글래스고 탄소중립금융연합(GRANZ) 출범 • (글로벌) IFRS재단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설립

"모든 당사국에 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감축Phase-down을 촉구한다."

– 글래스고 기후합의 –

| 탈석탄금고에서 탄소중립금고로 |

탈석탄금고의 성공적 확산을 탄소중립으로 이어 가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젝트 또는 산업에 필요한 규모의 투자 또는 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탄소중립달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탈석탄금고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부터 자금을 빼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탄소중립금고는 빠져나온 자금의 흐름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산업으로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동남아시아 석탄 발전소 매입 및 조기폐쇄 계획[3]

- ADB는 COP26 기간 중 에너지전환매커니즘Energy Transition Mechanism, ETM 발표
- ETM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석탄발전소를 매입·조기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
-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에서 시범사업 진행 계획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국 전체 석탄 발전소의 50%를 조기 폐쇄하는 것을 목적
-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진행 예정이며, 미국, 영국, 일본, HSBC, 록펠러 재단 등이 지지표명

탄소중립금고는 금고, 주거래은행 등의 선정지표에 '석탄투자금액', '탈석탄선언여부'에 더하여 '투자대상 기업 기후변화정보공개 활동', '자산포트폴리오를 포함한 넷제로선언' 등 금융기관이 투자대상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금융기관은 최근 1년 동안 매우 큰 변화를 만들어왔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여전히 심각해지고 있으며,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직접적인 기후변화 대응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막기 위한 제도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도 이제 탈석탄선언을 넘어,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 리스크 관리와 기후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야할 시점이다.

| COP26,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Phase-down) 합의 |

지난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26차 UN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역대 최초로 석탄발전과 관련된 구체적 합의가 담긴 "글래스고 기후 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현재 당사국이 제출한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 대비 14% (지구평균 온도 2.5~2.7℃ 상승)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당사국은 1.5℃ 목표달성을 위해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과 관련해서도 단계적 감축(Phase-down)[1]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베트남, 인도네시아[2] 등 40여 개국은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선언Global Coal to Clean Power Transition Statement에 서명했다. 이 선언에는 주요 경제국major economy은 2030년대에, 그리고 그 이외globally국가는 2040년대에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최근까지 국내 공적금융기관이 석탄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최근 신규석탄발전소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지역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들 국가의 석탄

1. 합의문 초안에는 '단계적 폐지(phase-out)'으로 표기되었으나, 중국, 인도의 반대로 '단계적 감축(phase-down)'으로 문구 수정
2. 인도네시아는 2040년대까지 노력하겠지만 지원을 요구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선언에 참여
3. 출처:https://www.adb.org/news/features/energy-transition-mechanism-explainer-support-climate-action-southeast-asia

ESG 및 기후금융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

ESG금융

- 유엔환경프로그램 금융이니셔티브 UNEP FI,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 UNEP FI 지속가능보험원칙 PSI, Principle for Sustainable Insurance
- UNEP FI 책임은행원칙 PRB,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 책임투자원칙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 책임투자포럼 SIF, Sustainable Investment Forum
-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 GSIA,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 적도 원칙 Equator Principles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기후변화

-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 TCFD,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 녹색금융협의체 NGFS,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 CDP 서명기관 CDP Signatories
- 기후공시표준위원회 CDSB, Climate Disclosure Standard Board
- 탄소회계금융협회 PCAF,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 기후행동 100+ Climate Action 100+
- 기후변화 투자자 그룹 IGCC,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

발전소를 설계수명 이전에 조기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도 본격화 되고 있다. ADB는 COP26 기간 중 동남아시아 국가의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프로그램인 ETM을 발표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2050 넷제로 로드맵에 따른 석탄발전소 폐쇄 시점[2]

2030	2040
선진국 석탄발전 폐쇄 시점	개도국 석탄발전 폐쇄 시점

| 글로벌 공적 금융기관, 탈석탄에서 탈화석연료로 |

COP26에서는 2022년까지 공적금융기관을 통한 화석연료 투자를 중단하자는 선언문Statement on International Public Support for the Clean Energy Transition이 발표되었다.[1] 이 선언은 석탄뿐만아니라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독일, 프랑스, 유럽 투자은행 등 39개 국가 또는 다국적개발은행이 선언문에 서명했다. 기후위기 극복과 사회전체의 지속가능성 향상이라는 공적 책무에 부응하기 위해, 공적금융기관이 한 발 앞서 나아가는 모양새다. 한국 및 한국의 공적금융기관은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

| 글래스고탄소중립금융연합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 GFANZ 출범 |

금융기관이 소유한 건물이나 데이터센터의 에너지소비를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미미하다. 하지만 반대로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영향력과 자산으로부터 파생되어 오는 리스크 때문이다. 탄소중립도 마찬가지다. 금융기관의 탄소중립은 반드시 자산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하 금융배출량, Financed Emission)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COP26에서 전세계 450개 이상 금융기관(운용자산: 130조 (US)달러)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연합인 GFANZ가 출범했다. GFANZ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은 2050년 이전까지 금융배출량 포함한 넷제로와 2030년까지 50% 이상 감축을 서약해야 한다.

전세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가량이다.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거나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넷제로 목표를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한 발 앞서 탈석탄에 나선 이유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탄소중립목표 이행을 위해 이제 석탄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자산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 국내 금융기관, 신규 투자 중단 선언을 넘어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시작해야 |

최근 국내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시각은 크게 달라졌다. 이어지고 있는 석탄발전에 대한 신규투자 중단선언이 그 방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규투자중단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탈탄소경제에서 금융기관 본연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기존 투자된 석탄 및 온실가스 多배출 자산에 대한 출구전략Exit plan 마련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1. 출처:https://ukcop26.org/global-coal-to-clean-power-transition-statement/
2. 출처:https://www.iea.org/commentaries/key-lessons-for-phasing-out-co2-emitting-coal-plants-from-electricity-sectors

넷제로

- 탄소중립금융얼라이언스 GFANZ, 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
-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 금융섹터 SBTi,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 넷제로 은행 얼라이언스 Net-Zero Banking Alliance
- 넷제로 자산소유사 얼라이언스 Net-Zero Asset Owner Alliance
- 넷제로 자산운용 이니셔티브 Net Zero Asset Managers Initiative
- 넷제로 보험 얼라이언스 Net-Zero Insurance Alliance
- 파리목표 부합 투자 이니셔티브 Paris Aligned Investment Initiative
- 넷제로 금융서비스 제공기업 얼라이언스 Net Zero Financial Service Providers Alliance

탈석탄

- 탈석탄동맹 PPCA, Past Powering Coal
- 글로벌 석탄 금융 트래커 Global Coal Project Finance Tracker
- Insure Our Future

탄소중립과 금융

금융기관의 탄소중립목표 이행과 석탄금융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18년 IPCC 1.5℃ 특별보고서에서 제시한 지구평균온도 상승 1.5℃ 이하 제한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1] 아울러 이를 위해 내년까지 각 국이 2050년 넷제로목표에 부합한 2030년 감축목표를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실제 온실가스의 배출은 개인이나 조직의 무수히 많은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 과정에서 발생한다. 전세계 배출량은 개별활동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의 합이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은 배출량 산정의 역순으로 진행된다. 즉, 전세계적 목표가 정해지면, 이에 부합하는 수준의 국가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각국 정부는 국가목표에 기반해, 이를 다시 개별 주체에게 직접 감축의무를 부여하거나 또는 각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 시스템을 개편한다.

현재까지 각 국이 제출한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모두 이행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대비 1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5℃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45% 감축이 필요하다는 점과 비교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UNFCCC 당사국은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통해 2022년말까지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한 수준의 2030 NDC를 다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 목표 수준이 강화되면, 이에 맞춰 다시 기업을 포함한 각 주체 별 책임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 금융기관의 탄소중립목표 |

기후변화에 있어 금융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 훨씬 포괄적이다. 금융은 산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투자 기업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를 함께 가지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탄소중립은 단순히 자체 사업장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수준을 넘어선다. 최근 출범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모든 금융 이니셔티브는 가입 금융기관에게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중립목표 경우도 반드시 금융배출량을 포함한 탄소중립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 기후금융이니셔티브 가입하여 목표수립에 활용 |

최근 국내 금융기관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내 금융기관들도 금융배출량 산정부터 목표의 기준까지 관련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1. 원문: Also recognizes that limiting global warming to 1.5 °C requires rapid, deep and sustained reductions in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including reducing global carbon dioxide emissions by 45 per cent by 2030 relative to the 2010 level and to net zero around mid-century, as well as deep reductions in other greenhouse gases;

기후변화목표 이행과 금융기관의 탄소중립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 예방
=
2100년까지 산업화이전 대비 지구평균온도상승 1.5℃이하로 제한

글로벌 기후목표 (유엔기후변화협약)	국가 감축목표	기업 감축목표	금융기관 탄소중립 목표
파리협정 •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유지, 1.5℃ 제한 노력 **글래스고기후합의** •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45% 감축 필요성 확인	**2030 국가감축목표(NDC)** • 5년 단위 갱신 • 2022년까지 1.5℃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2030 NDC 조정 **2050 장기 저탄소 개발전략 (LEDS)** • LEDS 미제출 국가는 2050 탄소중립에 일치하게 수립하여 제출	**의무** •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해 할당 받은 목표 • 일반적으로 Scope 1 또는 Scope 2만 적용 **자발** • 일반적으로 SBTi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하여 수립 • Scope 3(공급망 등 가치사슬 배출량 목표 포함)	**자체** • 건물, 데이터센터 등 자체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 감축목표 ✚ **포트폴리오** •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감축목표(Scope 3) • 모든 금융관련 탄소중립 이니셔티브에서 포트폴리오 탄소중립 의무화

IPCC 보고서 → *기후과학에 기반한 Science Based* → *기후변화 정책 및 감축목표 수립*

"모든 금융기관은 석탄자산의 즉각적 철회를 통해 리더십을 증명해야 한다.

Mark Carney
(유엔기후 특사 / 전 영란은행장)

국내 8개 금융그룹 또는 기관이 금융배출량 산정 기준을 제공하는 탄소회계금융연합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PCAF에 가입하여, 배출량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온실가스감축 목표 기준을 제공하는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SBTi에 서명하여, 목표수립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금융기관은 7개였다.

기후변화 금융이니셔티브 참여 금융기관

이니셔티브	금융기관 명
PCAF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중소기업은행, DGB금융그룹, JB금융그룹, 한화자산운용
SBTi	우리금융그룹, KB금융그룹, 미래에셋증권, SK증권, 신한금융그룹, DGB 금융그룹, 중소기업은행
NZBA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중소기업은행, JB금융그룹

I 탄소중립목표 수립 및 계획 금융기관 35개 I

국내 금융기관 가운데 탄소중립목표를 수립했다고 보고한 기관은 총 14개였으며, 향후 수립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금융기관은 21개였다. 5대 시중은행은 모두 탄소중립목표를 수립했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금융배출량을 포함한 탄소중립 목표를 보고했으며, 하나은행은 금융배출량이 미 포함된 목표를 보고했다. 하나은행을 포함한 하나금융그룹은 향후 금융배출량이 반영된 탄소중립목표를 재수립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적금융기관 가운데서는 수출입은행이 탄소중립목표를 수립했다고 보고했으며, 중소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향후 목표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탄소중립목표에 금융배출량을 반영했다고 보고했으나, 목표수립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배출량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를 발표하여, 목표이행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탄소중립목표 수립 시, 금융배출량을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I 금융기관, 석탄자산 유지하는 한 탄소중립목표 달성 어려워 I

유엔기후특사이자 GFANZ의 의장은 맡고 있는 마크 카니는 금융기관의 탄소중립목표 선언은 시작점에 불과하며,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IEA의 시나리오에 따라 2040년 이전까지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BTi도 참여 금융기관에 즉각적인 신규 석탄자산 투자중단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선진국, 2040년까지 개도국에 대한 석탄금융을 모두 회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석탄금융을 유지하는 한 현재 이어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탄소중립선언은 그린워싱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석탄 및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을 유지하는 한 2050 탄소중립의 전제조건인 2030년 45% 감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본 보고서를 위한 설문에서는 삼성화재, DB손보, AIA생명, 하이투자증권이 석탄발전에 대한 기존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목표 수립 및 수립계획 금융기관

구분		기관명
탄소중립 목표수립	금융배출량 포함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AIA생명, K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KB손해보험, KB증권, 수출입은행
	금융배출량 미포함	하나은행[1], DB손해보험, 흥국화재, 하나금융투자, 여수광양항만공사[2]
탄소중립목표 수립계획 있음		교직원공제회,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삼성생명, 신한라이프[3], ABL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삼성화재, 서울보증보험, 코리안리재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IBK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1. 하나금융지주는 금융배출량을 포함한 신규목표 수립계획 발표
2.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자금 운용관련하여 응답
3. 구 신한은행

금융기관의 석탄자산 리스크

금융기관 석탄자산 익스포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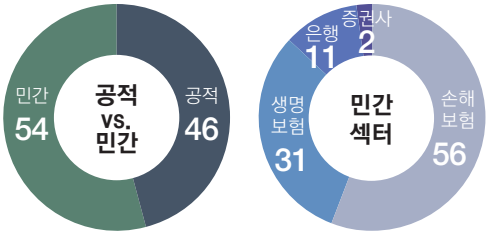
석탄금융은 환경적·윤리적 문제를 넘어 그 자체로 매우 리스크가 큰 금융활동이다. 본 보고서는 석탄관련 자산에 대한 익스포져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및 탄소중립목표 달성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86조원

석탄 익스포져 규모

최근 기후변화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전세계 120개국 이상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한국도 지난해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올해 8월 탄소중립을 의무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제사회 또는 국가차원의 정책 변화는 사회·경제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기관 유형별 익스포져 (단위: %)



| 금융기관, 자산 포트폴리오 기후리스크 관리해야 |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시스템 변화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NGFS 1.5℃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한 스트레스 테스트[1] 결과에 의하면, 기후변화 이행리스크로 인한 한국경제의 2050년 기준 GDP 손실규모는 최대 7.4%(연평균 0.2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따른 고탄소 산업의 부도율 상승 및 주가하락으로 국내은행의 BIS비율도 2050년 최대 5.8%(연평균 0.19%)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NGFS는 기후변화로 인한 실물경제의 변화 및 자산가치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기관의 감독체계에 기후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리스크의 첫 번째 단계는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금융기관의 석탄자산에 대한 익스포져를 분석했다.[2]

| 석탄자산 익스포져 산정 방법론 |

국내금융기관이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탄관련 기업에 투자된 자산을 분석하고 익스포져 규모를 산정했다.

석탄자산 익스포져 순위 및 금융기관별 세부내역 (단위: 억원)

순위	기관명	익스포져 규모	총자산 대비 비중	자산군별 구분			
				대출	회사채	보험	주식
1	산업은행	179,826	7%	9,774	841	–	169,211
2	국민연금	96,783	1%	–	96,783	–	–
3	삼성화재	66,884	7%	7,372	10,785	47,996	731
4	수출입은행	55,079	6%	55,079	–	–	–
5	DB손해보험	49,014	12%	1,787	–	47,227	–
6	삼성생명	47,219	2%	10,997	36,222	–	–
7	무역보험	46,680	113%	–	–	46,680	–
8	롯데손해보험	31,692	19%	5,528	–	26,035	129
9	흥국화재	31,462	23%	4,998	–	26,464	–
10	코리안리재보험	30,483	45%	218	–	30,265	–

1. 출처: 한국은행 (2021), 금융안정보고서-참고7. 기후변화 이행리스크를 고려한 은행부문 스트레스 테스트
2. 한국은행이 2018년 은행을 대상으로 광업,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대출, 주식, 회사채 규모를 분석한 적이 있음

- 대상금융기관: 전체 공적금융기관, 민간금융기관
- 대상자산 지역범위: 국내 금융기관이 투자한 국내 및 해외 자산
- 대상자산군: 2021년 6월 잔액기준, 대출(PF 및 일반기업대출), 회사채, 보험(부보금액) 및 주식
- 대상업종: 석탄발전프로젝트, 광업 및 석탄발전업에 속하는 기업

| 국내 금융기관, 석탄 익스포져 규모 86조원 |

국내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및 관련 기업에 대한 총 익스포져 규모는 약 86조원이다. 공적금융기관이 약 39.9조, 민간금융기관이 46조원 수준이었다. 공적금융기관의 총 익스포져 가운데 45%는 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은 경영권확보 목적으로 한국전력의 지분(약 17조원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민간금융기관의 업종별로는 손해보험이 25.9조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생명보험(14.3조원), 은행(5조원) 순이었다.

민간을 그룹사별로 구분해 분석해 보면, 삼성이 11.4조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는 DB그룹과 태광그룹(모두 4.9조원)순이었다. 보험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룹의 순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자산군 별로는 보험이 25조원, 회사채가 23.4조원이었으며, 대출(19.8조원), 주식(17.7조원) 순이었다.

| 2030, 2040, 2050년 기준 미래 익스포져 분석 |

기후변화 및 석탄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점이 되는 2030년, 2040년, 2050년 시점 별 익스포져를 분석했다. 주식은 지속 보유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PF대출[1]과 채권[2]은 설문을 통해 제공받은 만기일을 분석에 적용했다. 보험은 매년 갱신 계약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아 분석에서 제외했다.

보험을 제외한 국내 금융기관의 석탄자산 익스포져는 향후 3, 4년간 지속 증가하여 2025년 36.8조원으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발전소 관련 대출 약정액 가운데 미대출분이 이 기간 중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후 대출 및 회사채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의 경우 상당비율이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산업은행의 한전지분이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시간경과와 무관하게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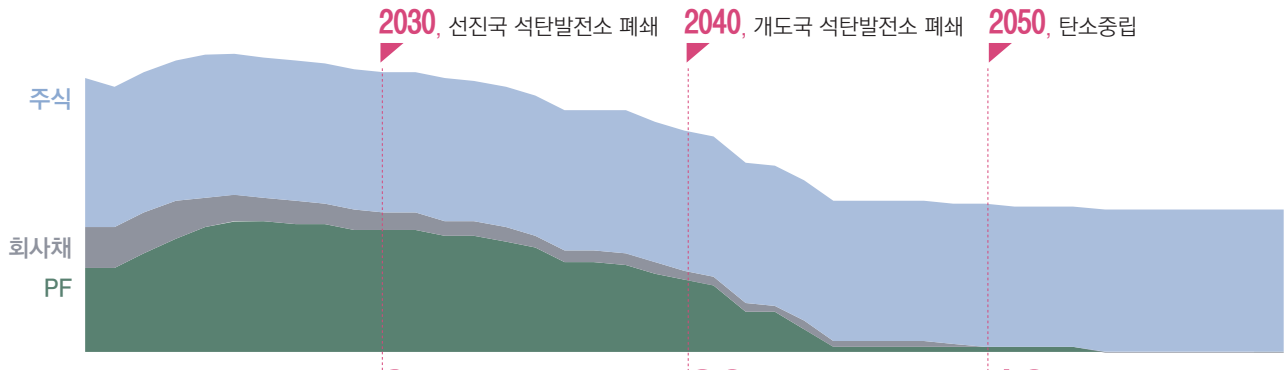
| 2030년 익스포져,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상 |

2030년 국내 금융기관의 석탄자산 익스포져는 34.6조원으로 2021년의 33조원보다 높았다. 특히 2030년 익스포져 가운데 85%가 국내 석탄발전소 관련 자산이었다. 2040년에도 28조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국내 비중은 오히려 97%로 증가했다.

금융기관별로는 한전지분의 영향이 큰 산업은행을 제외하면, 2030년까지는 수출입은행의 익스포져가 가장 높았으며, 이후부터는 보험사들의 익스포져가 높았다. 수출입은행이 주로 지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반면, 보험사들이 금융을 제공한 국내 프로젝트의 상환만기 기간이 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은행의 경우, 현실적으로 한전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지분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주로서 한전의 체질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 전체 대출 가운데 만기일 확인이 불가능한 일반 기업대출을 제외하고 분석
2. 전체 채권 가운데 만기일 확인이 불가능한 채권은 제외하고 분석
3. 구 신한은행

주식, PF, 채권 만기일 기준 석탄자산 익스포져 분석



기간별 석탄 익스포져 5

35조원

기관명	합계	선진국	개도국
산업은행	178,784	171,659	7,125
수출입은행	41,031	-	41,031
삼성생명	17,843	17,843	-
교보생명	13,163	13,163	-
흥국생명	11,744	11,744	-

28조원

기관명	합계	선진국	개도국
산업은행	170,543	170,543	-
삼성생명	12,944	12,944	-
교보생명	11,348	11,348	-
삼성화재	8,845	8,845	-
흥국생명	8,822	8,822	-

18조원

(단위: 억원)

기관명	합계	선진국	개도국
산업은행	169,211	169,211	-
교보생명	4,300	4,300	-
신한라이프[3]	1,776	1,682	95
한화손보	1,700	1,700	-
흥국생명	1,236	1,236	-

금융의 탄소중립과 2030 로드맵

금융기관 석탄자산 금융배출량 및 재무건전성 영향

금융기관이 투자, 대출 등의 형태로 금융을 제공한 석탄관련 자산의 미래가치(또는 상환능력)은 온실가스가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IMF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세계 평균 온실가스 가격이 2030년까지 75달러에 도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탄소가격 비교

$ 140
NGFS 넷제로 시나리오
한국 2030년 탄소가격

$ 75
IMF 권고 2030년
전세계 평균 탄소가격

$ 55
EU-ETS 평균 탄소가격[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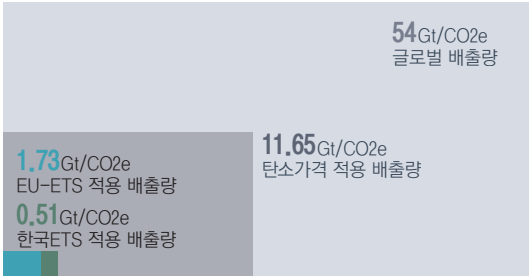
$ 17
한국-ETS 평균 탄소가격[5]

$ 3
전세계 평균 탄소가격

I 탄소가격제도 적용 온실가스 전세계 배출량의 21.5%에 불과, 평균 가격은 3달러선 I

IMF 권고에서 주목할 점은 "전세계 평균 온실가스 가격"이라는 지점이다. 현재 전세계 45개 국가에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온실가스가격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1] 하지만 최근 급격한 가격 상승[2]을 보이고 있는 EU배출권거래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의 온실가스 가격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세계 평균 온실가스가격은 톤당 3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탄소가격제 적용 배출량 규모 비교



I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급격한 자산가치 변화 불가피 I

EU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온실가스배출량은 전세계 배출량의 3.2%에 불과하다. 또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가격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비율이 21.5%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IMF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가격제도의 빠른 확산과 동시에 급격한 가격 상승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전세계적 탄소중립목표 달성 노력은 온실가스 多배출 산업의 급격한 자산가치 변동을 수반함을 의미한다.

최근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3] 도입을 발표했고, 미국도 탄소국경조정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염자부담원칙[4]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비용은 더 이상 피해가기 어려워지고 있다. 즉, 온실가스배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적절한 탄소가격을 지불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수출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탄소가격제를 도입할 때

PCAF를 이용한 금융배출량 산정방법

- 기업 및 금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인 GHG프로토콜은 배출원의 성격에 따라 Scope 1 (직접), Scope 2 (간접), Scope 3 (가치사슬)으로 구분
- 금융배출량은 Scope 3 배출량 카테고리 15 "투자"에 해당하며, 탄소회계금융연합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PCAF는 구체적 산정 지침인 「금융 섹터를 위한 글로벌 온실가스 회계 및 보고 표준」 개발
- TCFD, SBTi 등 주요 기후금융관련 이니셔티브는 PCAF를 이용하여 금융배출량 산정 권고
- 본 보고서는 PCAF 표준에 기반하여 분석을 진행했으며, 정확한 배출량 확인이 가능한 '회사채'와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한정하여 분석

PCAF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PCAF금융배출량 산정식

$$\text{금융 배출량} = \sum_i \text{할당계수}_i \times \text{피투자기관배출량}_i$$

(i = 피투자기관 또는 피대출기관)

$$\text{할당계수}_i = \frac{\text{대출(투자)잔액}_i}{\text{총자본}_i + \text{총부채}_i}$$

PCAF 자산군 분류

상장주식 및 회사채	기업대출과 비상장주식	프로젝트 파이낸스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캐피탈

1. 출처: 세계은행(https://carbonpricingdashboard.worldbank.org/)
2. EU ETS의 할당배출권인 EUA의 가격은 최근 톤당 60유로를 넘어섬
3.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가격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거나 탄소가격이 낮은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 수입과정에서 탄소비용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제도
4.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s Pay Principle, PPP: 오염방지 조치를 이행하거나 오염으로 야기된 피해를 보상하는데 드는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5. 2021년 평균 가격

10.4억tCO2e

2021년 – 2050년
누적 예상 금융배출량

4,423만tCO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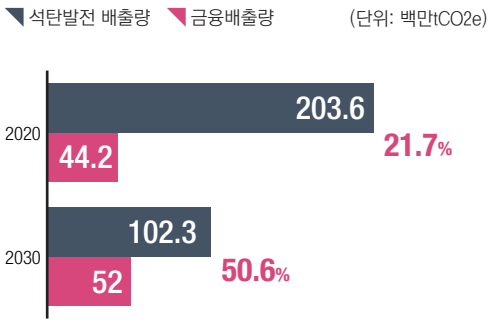
2021년 금융배출량

5,813만tCO2e

2025년 금융배출량 정점

발전부문을 최우선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석탄화력발전관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직접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2030 NDC 석탄발전 배출량과 금융배출량 비율 변화



| 국내 금융기관의 석탄자산 금융 배출량 분석 |

본 보고서는 국내 금융기관의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적·사회적 책임과 함께, 향후 직면하게 될 리스크의 크기를 유추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을 사용했다.

1. 탄소회계금융연합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PCAF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석탄관련 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을 도출
2. NGFS의 탄소가격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투자 또는 대출한 석탄자산의 탄소비용 산출.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 미치는 리스크 크기 간접 분석

국내 금융기관의 2021년부터 2050년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회사채로 인한 누적 금융배출량은 10.4억tCO2e다. 2018년 기준 국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순배출량 기준: 6.86억tCO2e / 총배출량 기준: 7.28억tCO2e)의 1.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국가 별로는 전세계 6위(2018년 연간 배출량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2025년 배출량 정점, 2034년까지 2021년 배출량보다 높은 수준 유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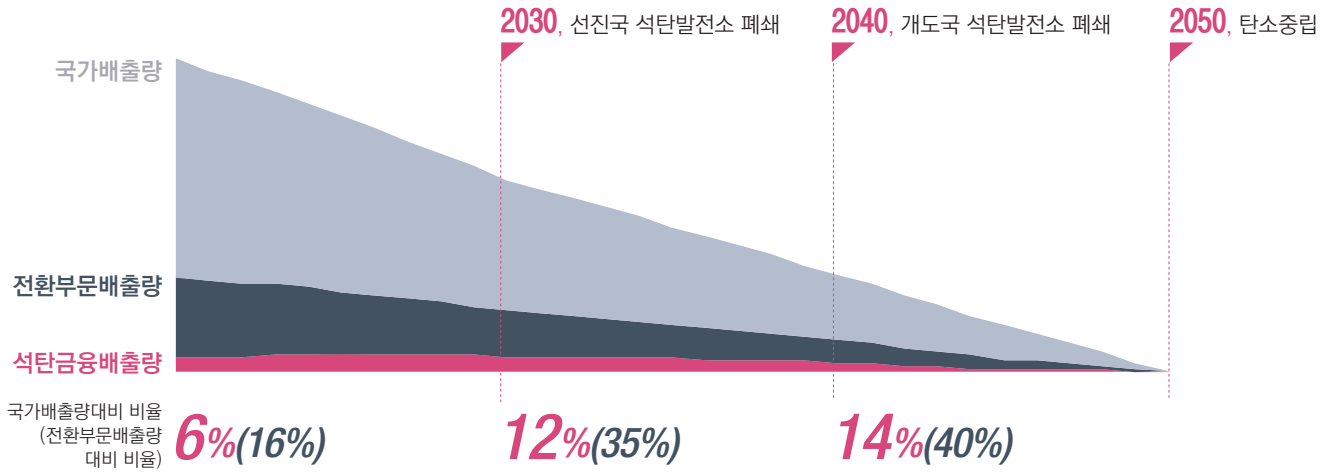
PF대출 및 회사채의 만기 상환을 가정하면, 석탄발전 관련 자산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은 2021년 4,423만tCO2e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5,813만tCO2e으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배출량은 2040년까지 3,000만tCO2e이상을 유지하다 2041년부터 빠르게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전체 석탄발전 배출량 대비 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 비율은 2021년 21.7%(2018년 배출량과 비교)에서 2030년 50.6%로 두 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이 IEA에서 권고한 선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시점이라는 점과 한국의 2030 NDC에 따른 석탄발전 배출량이 2018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권의 2030년 이후 석탄발전 배출량 기여도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국내 금융기관은 2010년대 후반부터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를 바탕으로, 석탄자산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시작한 글로벌 금융기관의 움직임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방향이었다. 이 시기, 국내 민간 금융기관은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 7기에 대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했으며,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은 선진국이 빠져나간 동남아시아 석탄발전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이어 나갔다. 국내 금융기관의 석탄금융배출량은 기후변화 정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 2040년에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의 단기주의적 속성, 국제 정책 동향을 반영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부재, 정부정책에 대한 낙관주의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석탄금융배출량은 국내와 해외 합계 수치

PF, 채권 만기일 기준 석탄금융배출량 분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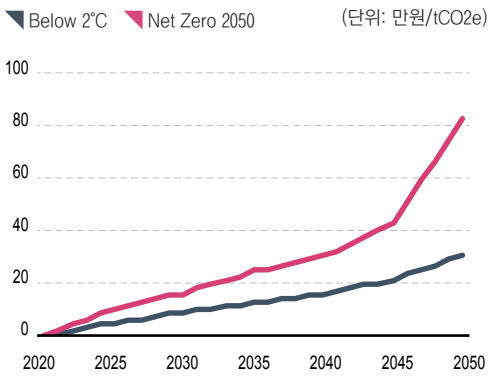


| 금융 탄소중립, '그린워싱'되지 않으려면 명확한 2030 로드맵 제시해야 |

현재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석탄발전 관련 대출 및 채권자산의 99.9%는 2050년 이전 만기가 도래한다. 즉, 금융기관이 연장만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노력없이도 석탄관련 자산이 자동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석탄뿐만 아니라 LNG등 대부분의 화석연료 관련 대출 및 채권 만기는 일반적으로 30년을 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관련 자산의 포트폴리오 2050년 탄소중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 달성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10년간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더라도, 만기만 연장하지 않는다면 쉽게 달성된다.

NGFS 시나리오 별 국내 탄소가격[3]



따라서 금융기관의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하는 시점은 2050년이 아니라 2030년이다. SBTi는 금융기관이 탄소중립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5℃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2030년 목표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탄소중립목표 선언 금융기관 가운데 SBTi 가입기관은 KB, 신한, 우리 금융그룹 등이다. 수출입은행은 SBTi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40년까지 석탄발전관련 모든 대출이 만기에 도달한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탄소중립 선언이 '그린워싱'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2030년 로드맵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국내금융기관이 금융제공한 석탄발전, 2050년까지 누적 탄소비용 190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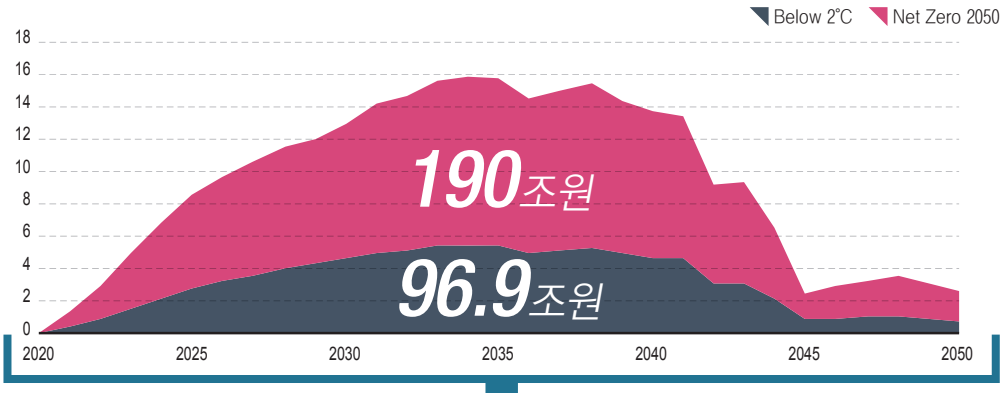
금융기관의 석탄 및 화석연료 자산에 대한 조기철회는 환경적 측면 뿐만 아니라, 재무적 측면에서도 매우 타당한 전략이다. NGFS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1]에 따르면, 한국의 탄소가격은 2030년 16만원, 2040년 30만원, 2050년 82만원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가격의 상승은 곧 금융기관의 대출, 투자한 프로젝트 또는 기업의 비용상승을 의미한다. 투자대상 기관의 비용상승은 상환능력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금융기관이 PF를 제공하거나 회사채를 인수한 기업 또는 프로젝트의 2050년 누적 탄소비용은 1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 가운데 150조원 가량은 2030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도 2030년 이전에 기존 보유하고 있는 석탄 및 화석연료 자산에 대한 조기 철회 또는 상환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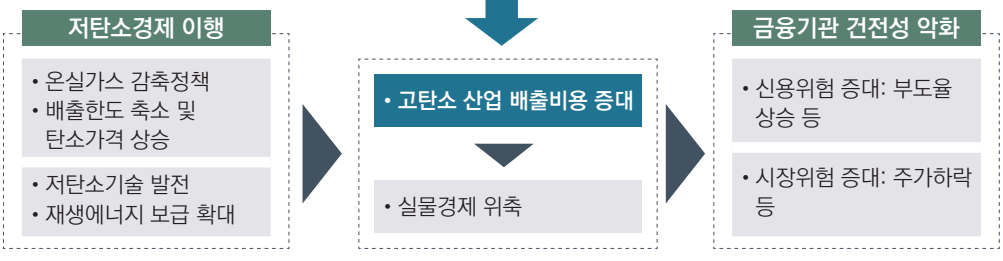
1. NGFS는 금융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했으며, 한국은행 등 다수의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에서 기후변화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NGFS시나리오 활용 중. 시나리오는 총 6개(Net Zero 2050, Below 2℃, Divergent Net Zero, Delayed Transition, NDC, Current Policies)로 구성. 본 보고서는 Net Zero 2050과 Below 2℃를 분석에 사용. 시나리오별 자세한 설명 및 가정은 NGFS 시나리오 포털 참조 (https://www.ngfs.net/ngfs-scenarios-portal/explore)
2. 출처: 한국은행 금융안정성 보고서
3. 1,150원/달러 환율 적용하여 원화로 표기

국내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배출로 인한 탄소비용과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기후시나리오 별 포트폴리오 배출의 탄소비용



탄소가격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과정[2]



2030, 2040 금융배출량 및 포트폴리오 탄소 비용 전망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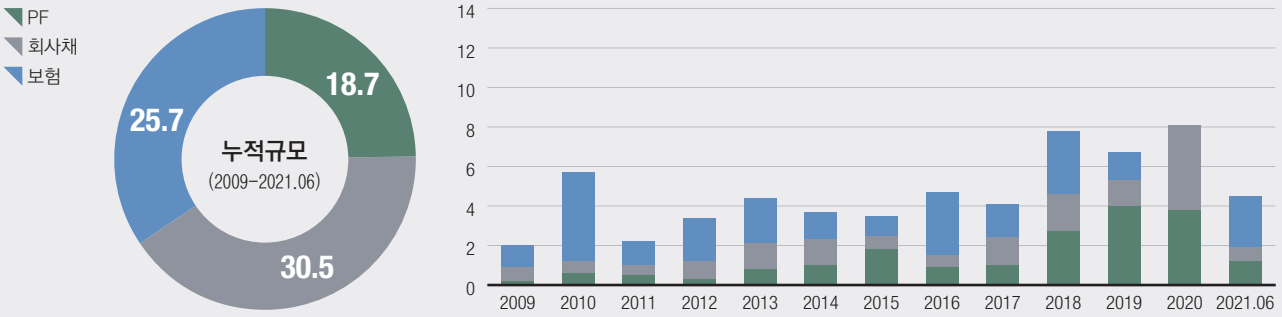
기관명	2021			2030			2040		
	금융배출량 (tco2e)	Below 2°C	Net Zero 2050	금융배출량 (tco2e)	Below 2°C	Net Zero 2050	금융배출량 (tco2e)	Below 2°C	Net Zero 2050
공적금융									
국민연금					미보고				
무역보험					미보고				
중소기업은행	66,632	6	13	133,371	119	214	84,837	132	254
수출입은행	9,715,548	927	1,955	13,287,133	11,815	21,319	2,583,925	4,007	7,730
산업은행	984,714	94	198	2,797,179	2,487	4,488	376,677	584	1,127
은행									
국민은행	1,434,380	137	289	1,777,897	1,581	2,853	977,798	1,516	2,925
농협은행	1,063,702	102	214	892,124	793	1,431	803,135	1,245	2,403
신한은행	1,217,469	116	245	1,316,887	1,171	2,113	1,250,842	1,940	3,742
우리은행	770,139	73	155	1,007,668	896	1,617	706,977	1,096	2,115
하나은행	494,498	47	99	1,218,731	1,084	1,955	634,827	984	1,899
손해보험									
삼성화재	2,844,309	271	572	3,240,752	2,882	5,200	2,418,886	3,751	7,237
한화손해보험	1,223,922	117	246	1,320,483	1,174	2,119	1,266,575	1,964	3,789
현대해상	1,223,795	117	246	1,424,217	1,266	2,285	1,173,675	1,820	3,511
DB손해보험	561,781	54	113	971,477	864	1,559	692,302	1,073	2,071
KB손해보험	1,368,278	131	275	1,689,177	1,502	2,710	1,098,503	1,703	3,286
생명보험									
교보생명	2,545,704	243	512	3,907,985	3,475	6,270	3,390,094	5,257	10,142
미래에셋생명	705,329	67	142	950,068	845	1,524	950,068	1,473	2,842
삼성생명보험	6,390,822	610	1,286	5,282,830	4,698	8,476	3,833,616	5,944	11,469
신한라이프[1]	2,217,060	212	446	1,615,972	1,437	2,593	1,116,713	1,732	3,341
흥국생명	3,380,272	323	680	3,138,600	2,791	5,036	2,465,729	3,823	7,377
증권사									
하이투자증권	38,244	4	8	–	–	–	–	–	–
한국투자증권	91,638	9	18	–	–	–	–	–	–
KB증권	220,682	21	44	–	–	–	–	–	–

1. 구 신한생명, 구 오렌지라이프 합산

한국 석탄금융 트렌드[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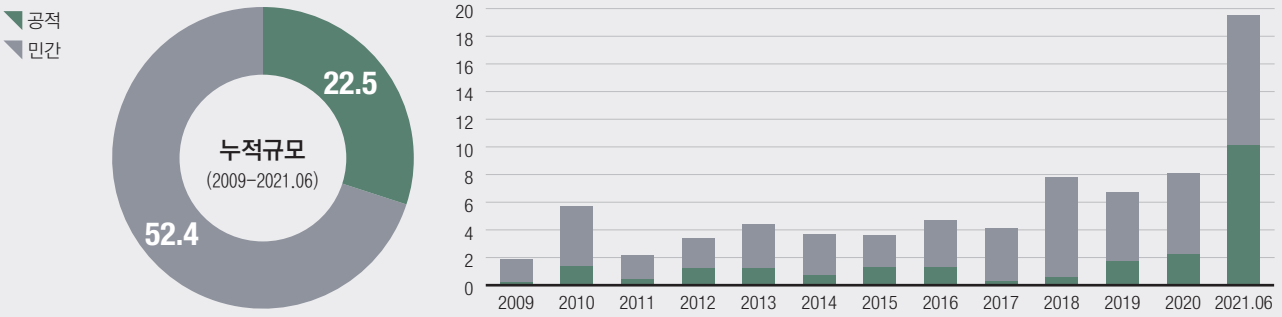
금융유형 별 석탄금융 규모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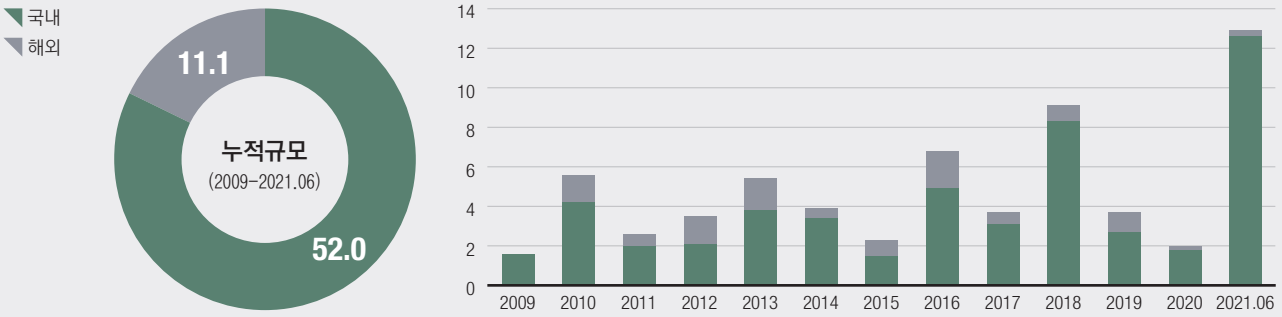
공적 vs 민간 금융기관 석탄금융 규모 및 비중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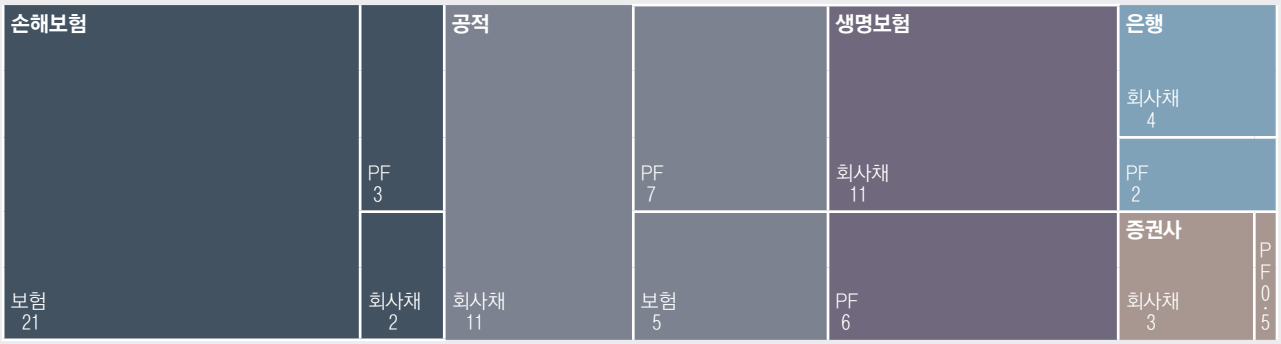
국내 vs 해외 석탄금융 규모 및 비중

(단위: 조원)



섹터 별 석탄금융 규모 (2009-2021.06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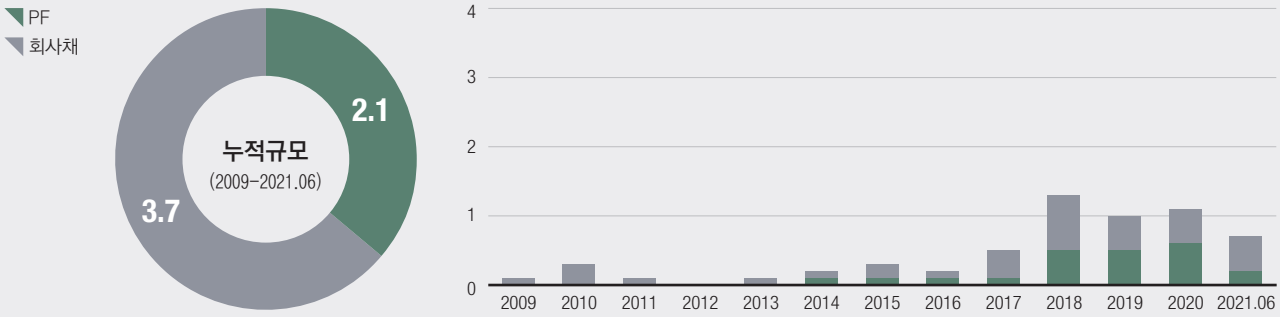
(단위: 조원)



1. 연도별 규모는 연도 확인가능 자산만 표기
2. 운영보험은 해당 발전소 최초 계약연도 부보금액만 합산하여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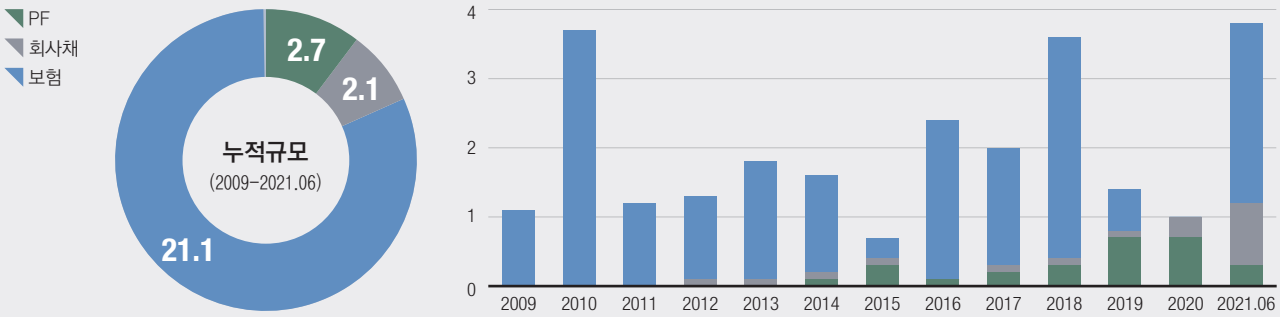
석탄금융 유형별 규모 **은행**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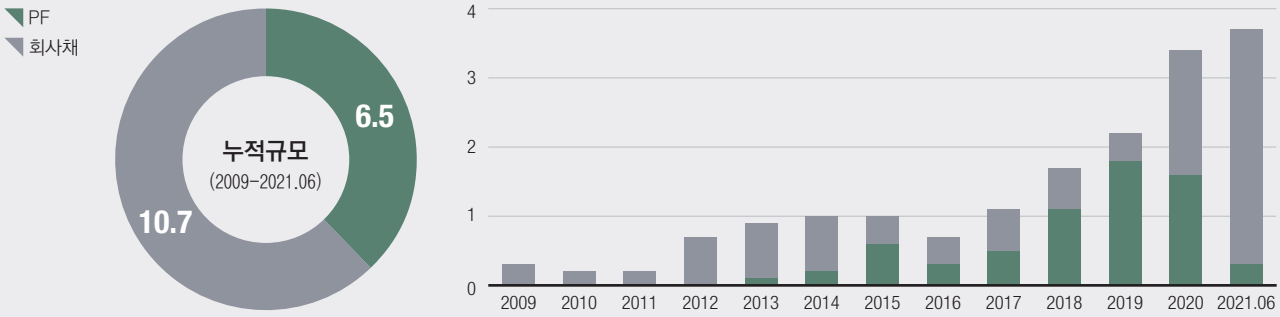
석탄금융 유형별 규모 **손해보험**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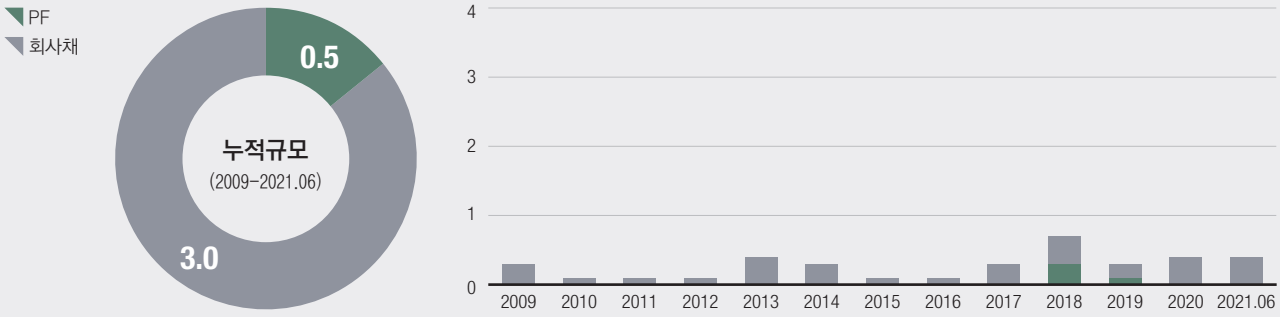
석탄금융 유형별 규모 **생명보험**

(단위: 조원)



석탄금융 유형별 규모 **증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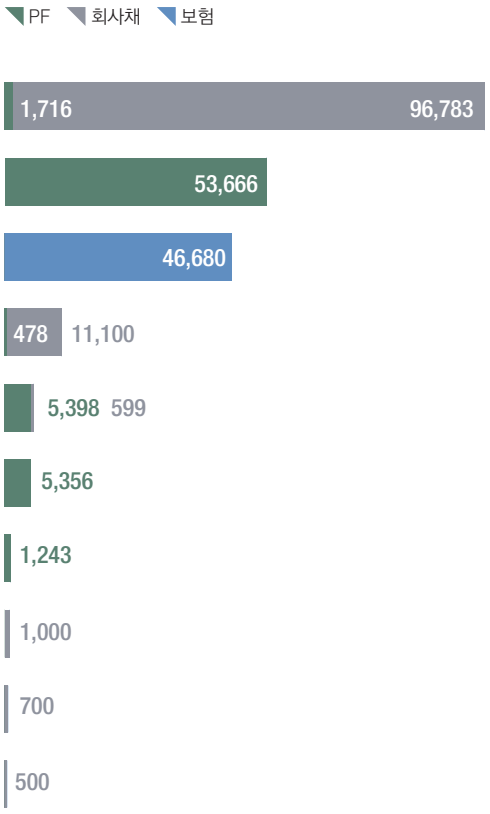
(단위: 조원)



한국 석탄금융 순위[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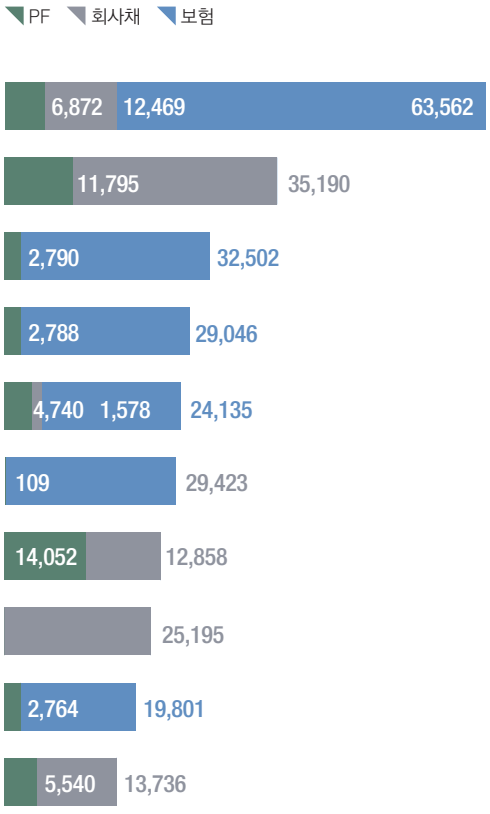
공적금융기관, 석탄금융 Top 10 (단위: 억원)

1	국민연금	*98,499*
2	수출입은행	*53,666*
3	무역보험	*46,680*
4	우정사업부	*11,578*
5	산업은행	*5,997*
6	새마을금고	*5,356*
7	중소기업은행	*1,243*
8	사학연금	*1,000*
9	교직원공제회	*700*
10	공무원연금	*500*



민간금융기관, 석탄금융 Top 10 (단위: 억원)

1	삼성화재	*82,903*
2	삼성생명	*46,985*
3	DB손해보험	*35,291*
4	흥국화재	*31,835*
5	현대해상	*30,454*
6	코리안리재보험	*29,532*
7	농협생명	*26,910*
8	하이투자증권	*25,195*
9	롯데손해보험	*22,565*
10	흥국생명	*19,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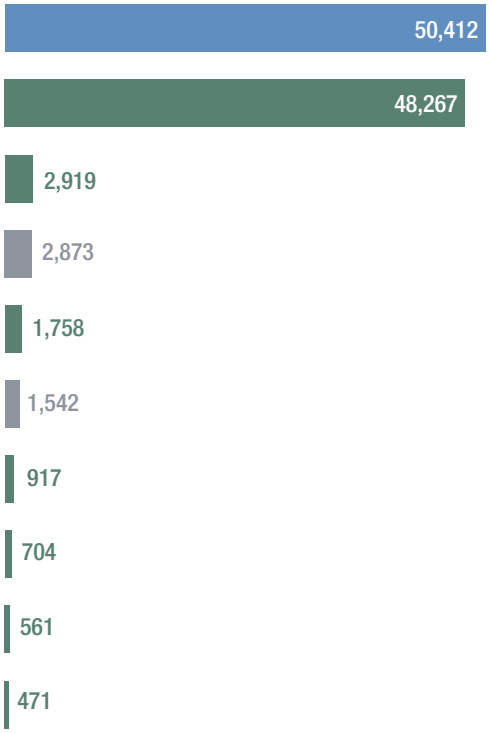
1. 주식투자규모 제외
2. 금년 설문지 미응답 기관은 작년 데이터 사용

해외 석탄발전 금융제공 Top 10

(단위: 억원)

PF 회사채 보험

1	무역보험	*50,412*
2	수출입은행	*48,267*
3	산업은행	*2,919*
4	국민연금	*2,873*
5	우리은행	*1,758*
6	미래에셋생명	*1,542*
7	하나은행	*917*
8	한국투자증권	*704*
9	국민은행	*561*
10	농협은행	*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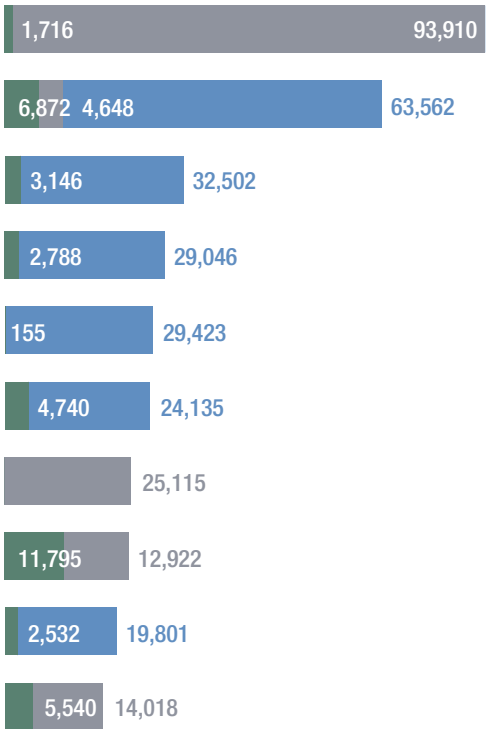


국내 석탄발전 금융제공 Top 10

(단위: 억원)

PF 회사채 보험

1	국민연금	*95,626*
2	삼성화재	*75,082*
3	DB손해보험	*35,648*
4	흥국화재	*31,835*
5	코리안리재보험	*29,578*
6	현대해상	*28,875*
7	하이투자증권	*25,115*
8	삼성생명	*24,717*
9	롯데손해보험	*22,333*
10	흥국생명	*19,557*



정부부처별 석탄금융 순위

(단위: 억원)

순위	부처명	응답기관 수	석탄금융규모	기관명	기관별 규모
1	보건복지부	1	98,499	국민연금	98,499
2	기획재정부	1	53,666	수출입은행	53,666
3	산업통상자원부	1	46,680	무역보험[1]	46,680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1,578	우정사업부[1]	11,578
5	금융위원회	2	7,240	산업은행	5,997
				중소기업은행	1,243
6	행정안전부	1	5,356	새마을금고[1]	5,356
7	교육부	2	1,700	사학연금[1]	1,000
				교직원공제회	700
8	인사혁신처	1	500	공무원연금[1]	500

민간금융 섹터별 석탄금융 순위

(단위: 억원)

	순위	기관명	석탄금융규모
은 행	1	신한은행	14,170
	2	BNK경남은행	13,567
	3	국민은행	8,059
	4	부산은행	7,359
	5	농협은행	6,850

	순위	기관명	석탄금융규모
생명보험	1	삼성생명	46,985
	2	농협생명[1]	26,910
	3	흥국생명	19,276
	4	신한라이프[2]	14,781
	5	한화생명[1]	11,683

	순위	기관명	석탄금융규모
손해보험	1	삼성화재	82,903
	2	DB손해보험	35,291
	3	흥국화재	31,835
	4	현대해상	30,454
	5	코리안리재보험	29,532

	순위	기관명	석탄금융규모
증권사	1	하이투자증권	25,195
	2	한국투자증권	4,932
	3	KB증권	3,941
	4	하나금융투자	51

1. 올해 미응답, 작년 데이터 사용
2. 구 신한생명

민간금융 그룹별 석탄금융 순위

(단위: 억원)

순위	그룹명	석탄금융규모	계열사명	계열사별 석탄금융규모
1	삼성그룹	129,887	삼성화재	82,903
			삼성생명	46,985
2	태광그룹	51,111	흥국화재	31,835
			흥국생명	19,276
3	DB그룹	35,625	DB손해보험	35,291
			DB생명	334
4	신한금융그룹	32,508	신한라이프[1]	14,781
			신한은행	14,170
			신한라이프[2]	3,557
5	현대해상화재보험	30,454	현대해상	30,454
6	코리안리재보험	29,532	코리안리재보험	29,532
7	DGB금융그룹	28,283	하이투자증권	25,195
			DGB생명	3,088
8	KB금융그룹	24,412	KB손해보험	11,448
			국민은행	8,059
			KB증권	3,941
			KB생명	963
9	롯데그룹	22,565	롯데손해보험	22,565
10	BNK금융그룹	20,926	BNK경남은행	13,567
			부산은행	7,359

1. 구 신한생명
2. 구 오렌지라이프

부록1. 설문조사 및 분석 방법론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국내 공적, 민간 금융기관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 **설문조사 방법**

- 공적 금융기관: 양이원영의원실을 통해 공적 금융기관이 속해 있는 주무부처에 설문지 발송
- 민간 금융기관: 양이원영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했으며, 금감원이 개별 민간 금융기관에 설문지 응답 받아 제공

▶ **조사내용**

- 대상자산군: 석탄발전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일반대출, 회사채 (일반회사채 포함), 보험, 주식, 탈석탄선언 및 계획, 재생에너지 투자 현황 등
- 대상지역: 국내 및 해외
- 대상기간: 2009년부터 2021년 6월말

▶ **설문 응답기관:** 총 64개 금융기관 응답[1]

- 공적 금융기관: 14개
- 민간 금융기관: 50개
  - 은행: 11개
  - 생명보험사: 13개
  - 손해보험사: 19개
  - 증권사: 7개

❖ **국내 석탄금융의 전체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 전년도 자료 제출 했으나 올해 미제출 기관은 전년도 데이터 분석에 적용**

[분석 및 순위 산정방법]

▶ **종합분석 사용 데이터 및 방법**

- 본 보고서의 분석에는 취합데이터 가운데, 200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제공된 석탄발전관련 PF 대출, 회사채, 보험지원(부보금액) 금액 및 그 합을 기본 지표로 사용
- PF의 경우, 실제 인출된 금액을 기본 데이터로 사용했으며, 필요에 따라 약정액 사용
- 시계열 분석: 시점를 특정할 있는 금액만 분석에 사용
- 지역별 분석: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금액만 분석에 사용

▶ **순위 산정 시 사용 데이터 및 방법**

- 순위 산정에는 종합분석과 동일하게 PF 대출, 회사채, 보험지원액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그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 (주식투자금액 제외)
- 지역별 순위의 경우,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순위 산정 (지역을 미공개한 경우는 제외)

▶ **석탄자산 익스포저 분석 데이터 및 방법**

- 2021년 6월 잔액기준, 국내외 석탄발전 프로젝트, 광업 및 석탄발전업에 속하는 기업 대상 대출(PF 및 일반기업대출), 회사채, 보험 및 주식 자산의 합

▶ **금융배출량 산정 방법**

- PCAF 방법론을 적용
- 배출량 및 자산규모 확인이 가능한 PF 및 회사채에 한정해 분석

1. "해당없음" 회신 기관은 자료제공 기관 수 산정에서 제외

부록 2. 공적금융기관 석탄금융 현황[1]

1. 금년도 또는 전년도 자료 제출 기관만 표기, "해당없음" 회신 기관 미표기
2. 금년도 자료 미제출, 전년도 자료 사용

(단위: 억원)

기관명	주무부처	운용자산	석탄자산 익스포저 (%)	석탄금융규모(잔액기준)					석탄금융규모 (2009 – 2021.6 누적기준)		탈석탄금융 선언시기	기투자자산 철회 계획
				PF	회사채	보험	기업대출	지분투자	PF	회사채		
공무원연금[2]	인사혁신처	87,473	0.7%	–	500	–	–	82	–	500	미응답	미응답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6,723	0.0%	–	–	–	–	–	–	–	X	–
국민건강증진[2]	보건복지부	1,831	0.0%	–	–	–	–	–	–	–	미응답	미응답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8,935,012	1.1%	–	96,783	–	–	–	1,716	96,783	2021년	–
군인복지[2]	국방부	–	–	–	–	–	–	–	–	–	미응답	미응답
금강수계관리	환경부	90	0.0%	–	–	–	–	–	–	–	X	–
낙동강수계관리	환경부	2	0.0%	–	–	–	–	–	–	–	X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축산식품부	296	0.0%	–	–	–	–	–	–	–	X	–
무역보험[2]	산업통상자원부	41,417	112.7%	–	–	46,680	–	–	–	–	미응답	미응답
문화재보호	문화재청	–	–	–	–	–	–	–	–	–	X	–
방사성폐기물관리[2]	산업통상자원부	29,795	0.0%	–	–	–	–	–	–	–	미응답	미응답
사학연금[2]	교육부	219,214	0.6%	–	1,000	–	–	231	–	1,000	미응답	미응답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2]	산업통상자원부	730	0.0%	–	–	–	–	–	–	–	미응답	미응답
새마을금고[2]	행정안전부	659,748	0.8%	5,255	–	–	–	–	5,356	–	미응답	미응답
석면피해구제[2]	환경부	391	0.0%	–	–	–	–	–	–	–	미응답	미응답
수산발전[2]	해양수산부	1,675	0.0%	–	–	–	–	–	–	–	미응답	미응답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130	0.0%	–	–	–	–	–	–	–	X	X
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부	–	–	–	–	–	–	–	–	–	X	–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수산부	17,520	0.0%	–	–	–	–	–	–	–	X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	환경부	272	0.0%	–	–	–	–	–	–	–	X	–
우정사업부[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80,555	0.9%	286	11,100	–	286	807	478	11,100	미응답	미응답
전력산업기반[2]	산업통상자원부	14,953	0.0%	–	–	–	–	–	–	–	미응답	미응답
주택도시보증	국토교통부	–	–	–	–	–	–	–	–	–	X	–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3,349,588	0.0%	258	–	–	258	–	1,243	–	X	X
한강수계관리	환경부	999	0.0%	–	–	–	–	–	–	–	X	–
한국광물자원공사[2]	산업통상자원부	81	100.0%	–	–	–	81	–	–	–	미응답	미응답
교직원공제회	교육부	497,323	0.1%	–	700	–	–	–	–	700	2019년	–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2,759,444	6.5%	3,914	841	–	5,860	169,211	5,398	599	X	X
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975,900	5.6%	28,421	–	–	26,658	–	53,666	–	X	X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2]	국토교통부	–	–	–	–	–	–	–	–	–	미응답	미응답

부록 3. 민간금융기관 석탄금융 현황[1]

1. 금년도 또는 전년도 자료 제출 기관만 표기, "해당없음" 회신 기관 미표기
2. 금년도 자료 미제출, 전년도 자료 사용
3. 구 신한생명
4. 구 오렌지라이프

(단위: 억원)

기관명	주무부처	운용자산	석탄자산 익스포저 (%)	석탄금융규모(잔액기준)					석탄금융규모 (2009 – 2021.6 누적기준)		탈석탄금융 선언시기	기투자자산 철회 계획
				PF	회사채	보험	기업대출	지분투자	PF	회사채		
은행												
광주은행	JB금융그룹	274,136	0.0%	–	–	–	–	–	179	–	2020년	–
국민은행	KB금융그룹	4,387,999	0.3%	4,293	1,993	–	4,293	843	6,066	1,993	2020년	X
농협은행	농협금융그룹	3,533,289	0.2%	2,396	4,300	–	471	–	2,550	4,300	2021년	X
농협중앙회[2]		1,152,370	0.3%	1,036	–	–	–	1,937	1,036	–	미응답	미응답
부산은행	BNK금융그룹	652,931	0.7%	405	3,800	–	100	–	459	6,900	2021년	–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4,140,168	0.2%	3,878	4,900	–	294	–	4,170	10,000	2021년	X
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	3,760,575	0.1%	2,691	–	–	311	689	3,289	–	2020년	X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	3,977,055	0.2%	1,857	–	–	7,264	–	3,200	–	2021년	X
BNK경남은행	BNK금융그룹	449,362	0.5%	145	2,000	–	–	–	145	13,422	2021년	X
생명보험												
교보생명	교보그룹	1,159,926	0.7%	8,556	–	–	–	–	9,824	–	2021년	X
농협생명[2]	농협금융그룹	102,763	16.5%	3,896	12,858	–	–	207	14,052	12,858	미응답	미응답
동양생명	중국다자보험그룹	363,189	1.4%	1,388	3,559	–	–	–	2,778	7,407	X	X
메트라이프생명	미국메트라이프	242,837	1.3%	–	2,929	–	–	303	–	4,774	X	X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그룹	617,738	0.8%	2,315	2,761	–	–	–	2,315	6,812	X	X
삼성생명	삼성그룹	3,085,233	1.5%	10,997	36,222	–	–	–	11,795	35,190	2020년	X
신한라이프[3]	신한금융그룹	367,336	4.0%	1,475	10,515	–	1,475	1,376	1,474	13,307	X	X
신한라이프[4]	신한금융그룹	345,973	0.7%	–	2,474	–	–	–	–	3,557	X	X
한화생명[2]	한화그룹	1,257,799	0.8%	4,771	–	–	4,771	–	11,683	–	미응답	미응답
흥국생명	태광그룹	306,934	5.8%	4,140	9,370	–	3,685	455	5,540	13,736	X	X
ABL생명	중국다자보험그룹	204,725	0.3%	311	–	–	311	–	420	–	X	X
AIA생명	AIA그룹	178,555	0.7%	–	1,300	–	–	–	–	3,300	2018년	O (2030년)
DB생명	DB그룹	124,214	0.3%	234	100	–	–	–	234	100	X	X
DGB생명	DGB금융그룹	68,091	4.5%	188	2,900	–	–	–	188	2,900	2021년	X
IBK연금보험[2]	IBK기업은행	88,939	0.3%	170	110	–	–	–	170	120	미응답	미응답
KB생명	KB금융그룹	122,452	1.4%	879	–	–	811	68	963	–	2020년	X
KDB생명	산업은행	203,185	2.3%	1,672	3,000	–	–	–	3,178	3,000	X	X
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롯데그룹	162,710	19.5%	2,764	–	26,035	2,764	129	2,764	–	X	X
삼성화재	삼성그룹	912,927	7.3%	6,569	10,785	47,996	803	731	6,872	12,469	2020년	O (2040년)
서울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91,519	4.8%	–	–	4,369	–	–	–	200	2021년	–
코리안리재보험	코리안리재보험	67,335	45.3%	109	–	30,265	109	–	109	–	X	X
한화손해보험	한화그룹	199,460	6.3%	173	4,110	8,298	–	–	352	5,110	2021년	X
현대해상	현대해상화재보험	497,494	4.3%	4,112	1,578	11,333	4,112	71	4,740	1,578	X	X
흥국화재	태광그룹	134,522	23.4%	2,499	–	26,464	2,499	–	2,788	–	2021년	X
DB손해보험	DB그룹	403,512	12.1%	1,787	–	47,227	–	–	2,790	–	2019년	O (2050년)
KB손해보험	KB금융그룹	389,076	2.7%	4,168	100	1,902	4,168	204	6,498	700	2020년	X
NH농협손해보험[2]	농협금융그룹	95,350	0.8%	36	747	–	–	–	36	747	미응답	미응답
증권사												
메리츠증권	메리츠금융그룹	397,096	1.3%	–	–	–	5,154	–	–	–	X	X
미래에셋대우[2]	미래에셋그룹	–	–	–	–	–	–	–	–	–	미응답	미응답

기관명	주무부처	운용자산	석탄자산 익스포저 (%)	석탄금융규모(잔액기준)					석탄금융규모 (2009 – 2021.6 누적기준)		탈석탄금융 선언시기	기투자자산 철회 계획
				PF	회사채	보험	기업대출	지분투자	PF	회사채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그룹	347,933	0.0%	–	–	–	–	–	51	–	2021년	X
하이투자증권	DGB금융그룹	109,262	0.1%	–	120	–	–	–	–	25,195	X	O (2025년)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604,629	0.3%	1,004	79	–	1,004	–	1,062	3,870	2020년	X
현대차증권[2]	현대자동차그룹	–	–	–	–	–	–	–	–	–	미응답	미응답
IBK투자증권	IBK기업은행	52,024	0.0%	–	–	–	–	–	–	–	X	X
KB증권	KB금융그룹	540,361	0.0%	–	200	–	–	–	3,481	460	2020년	X
NH투자증권[2]	농협금융그룹	–	–	–	–	–	–	–	–	–	미응답	미응답
자산운용사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2]	신한금융그룹	96	100.0%	–	–	–	–	96	240	–	미응답	미응답
흥국자산운용[2]	태광그룹	2,066	58.3%	1,205	–	–	–	–	1,700	–	미응답	미응답

부록 4. 탄소중립 목표 및 재생에너지 투자 현황

1. 금년도 또는 전년도 자료 제출 기관만 표기, "해당없음" 회신 기관 미표기
2. 구 신한생명

(단위: 억원)

기관명	주무부처/그룹명	탄소중립목표			탄소중립목표 수립 계획		재생에너지 누적투자액	재생에너지 투자목표		
		목표수립 여부	목표연도	금융배출량 포함여부	계획여부	시기		목표유무	목표연도	목표금액
공적금융기관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X	–	–	X	–	634	O	세부계획 없음	–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수산부	O	2040년	X	–	–	–	X	–	–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X	–	–	O	2021년	2,995	O	2025년	14,500
교직원공제회	교육부	X	–	–	O	미정	2,914	O	미정	–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X	–	–	O	2022년	44,389	O	2021년	12,667
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O	2050년	O	–	–	56,281	O	21-30년(10년간)	107,000
민간금융기관 – 은행										
광주은행	JB금융그룹	X	–	–	O	2022년	–	X	–	–
국민은행	KB금융그룹	O	내부(2040년), 자산 포트폴리오(2050년)	O	–	–	5,118	O	2021년	1,880
농협은행	농협금융그룹	X	–	–	O	2022년	469	O	–	–
부산은행	BNK금융그룹	X	–	–	O	미정	610	O	–	현재 구체적 목표 없음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O	2050년	O	–	–	3,287	O	–	–
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	O	2050년	O	–	–	11,965	O	미정	미정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	O	2050년	X	–	–	–	–	–	–
BNK경남은행	BNK금융그룹	X	–	–	X	–	196	X	–	–
민간금융기관 – 생명보험										
교보생명	교보그룹	X	–	–	O	미정	42,433	O	–	–
동양생명	중국다자보험그룹	X	–	–	O	미정	2,521	–	–	–
메트라이프생명	미국메트라이프	O	본사 기준 2015년 달성	O	–	–	–	X	–	–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그룹	X	–	–	X	–	1,406	–	–	–
삼성생명	삼성그룹	X	–	–	O	미정	18,889	O	2030년	58,000
신한라이프[2]	신한금융그룹	X	–	–	O	미정	30,619	O	2022년	1,500
흥국생명	태광그룹	X	–	–	O	미정	8,625	O	2025년	5,000
ABL생명	중국다자보험그룹	X	–	–	O	미정	2,676	O	2021년	400
AIA생명	AIA그룹	O	2030년	O	–	–	–	X	–	–
DB생명	DB그룹	X	–	–	X	–	797	X	–	–
DGB생명	DGB금융그룹	X	–	–	O	2022년	–	X	–	–
KB생명	KB금융그룹	O	Scope 1&2: 2040년 / 자산포트폴리오 (Scope3): 2050년 탄소중립 달성	O	–	–	2,594	O	2023년	1,381
KDB생명	산업은행	X	–	–	X	–	228	O	2022년	1,000
민간금융기관 – 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롯데그룹	X	–	–	X	–	3,381	O	–	목표 설정 중
삼성화재	삼성그룹	X	–	–	O	미정	17,699	O	투자: 2030년	투자: 6.4조
서울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X	–	–	O	2022년	–	X	–	–
코리안리재보험	코리안리재보험	X	–	–	O	미정	399	O	미정	미정
한화손해보험	한화그룹	X	–	–	O	미정	9,101	O	2021년	800
현대해상	현대해상화재보험	X	–	–	O	미정	6,487	O	2021년	1,000~2,000
흥국화재	태광그룹	O	2050년	X	–	–	6,355	O	2021년	1,880

기관명	주무부처/그룹명	탄소중립목표			탄소중립목표 수립 계획		재생에너지 누적투자액	재생에너지 투자목표		
		목표수립 여부	목표연도	금융배출량 포함여부	계획여부	시기		목표유무	목표연도	목표금액
DB손해보험	DB그룹	O	2050년	X	-	-	8,617	O	2025년	6,000
KB손해보험	KB금융그룹	O	내부배출(Scop1&2) : 2040년 / 자산포트폴리오(Scope3) : 2050년 달성	O	-	-	8,580	O	2030년	21,066
민간금융기관 - 증권사										
메리츠증권	메리츠금융그룹	X	-	-	O	미정	8,558	O	2021년	4,000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그룹	O	2050년	X	-	-	13,394	O	-	-
하이투자증권	DGB금융그룹	X	-	-	O	2022년	1,330	X	-	-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X	-	-	X	-	3,283	-	-	-
IBK투자증권	IBK기업은행	X	-	-	O	미정	-	X	-	-
KB증권	KB금융그룹	O	2050년	O	-	-	1,022	X	-	-

부록 5. 탄소중립 및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이니셔티브 명	기관 명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중소기업은행 | KB금융그룹 | 미래에셋증권 | 우리금융그룹 | 신한금융그룹 | SK증권 | DGB금융그룹 | JB금융그룹
SBTi BA (Business Ambition) for 1.5℃ 캠페인	우리금융그룹
Net Zero Banking Alliance	중소기업은행 | JB금융그룹 | KB금융그룹 | 신한금융그룹
Net Zero Asset Manager Initiative	신한자산운용
CDP 서명기관	우리금융그룹 | 공무원연금공단 | DGB금융그룹 | 신한금융그룹 | 하나금융그룹 | JB금융그룹 | KB금융그룹 | 삼성화재 | 미래에셋증권 | 삼성생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 키움투자자산운용 | 기업은행 | 삼성증권 | BNK그룹 | NH농협은행 | 교보생명 | 한화생명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지지기관	아주IB투자 | 안다자산운용 | BNK자산운용 | BNK금융그룹 | 캐롯손해보험 | DGB금융그룹 | 하나금융그룹 | 한화자산운용 | 한화손해보험 | 한화투자증권 | 한화생명보험 | 한화저축은행 | 현대해상화재보험 | 아이엠엠 프라이빗에쿼티 | 중소기업은행 | JB금융그룹 | KB자산운용 | KB금융그룹 | 키움투자자산운용 | 신용보증기금 | 예금보험공사 | 한국거래소 | 금융결제원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투자공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 한국투자금융그룹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증권금융 | 기술보증기금 | 한국무역보험공사 | 미래에셋증권 | NH농협은행 | 삼성엑티브자산운용 | 삼성자산운용 | 삼성카드 | 삼성화재해상보험 | 삼성생명보험 | 삼성증권 | 에스지 프라이빗 에쿼티 | 신한자산운용 | 신한금융그룹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산업은행 | 교원공제조합 | 브이아이자산운용 | 우리금융그룹 | 유안타증권
UNEP FI (Finance Initiative)	DB손해보험 | DGB금융그룹 |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투자 | 한화생명보험 | 중소기업은행 | JB금융그룹 | KB금융그룹 | KB손해보험 | NH농협은행 | NH농협생명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삼성화재해상보험 | 삼성생명보험 | 신한금융그룹 | 신한생명보험 | 우리금융그룹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안다자산운용 | 대신증권 | 이엔에프프라이빗에쿼티 | 글렌우드프라이빗에쿼티 | 아이아이엠 프라이빗에쿼티 | 국민연금기금 | 페트라 케피탈 메니지먼트 | 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 | 에스지 프라이빗에쿼티 | 스카이레이크 에쿼티 | Socius | STIC 투자증권 | VI 자산운용 Korea | VIG 파트너스 LLC | 웰투씨 투자증권
PRB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DGB금융그룹 |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투자 | 중소기업은행 | JB금융그룹 | KB금융그룹 | NH농협은행 | 신한금융그룹 | 우리금융그룹
PSI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DB손해보험 | 한화생명보험 | KB손해보험 | NH농협생명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삼성화재해상보험 | 삼성생명보험 | 신한생명보험
PCAF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DGB금융그룹 | 하나금융그룹 | 한화자산운용 | 중소기업은행 | JB금융그룹 | KB금융그룹 | 신한금융그룹 | 우리금융그룹
EP (Equator Principles)	하나은행 | KB국민은행 | 한국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06088)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2
천마빌딩 707호
Tel: +82 (0)2 738 1142
www.kosif.org
kosif.@kosif.org

국회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양이원영 의원실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02호
Tel: +82 (0)2 784 8834
www.yangyi.kr
yangyi.assembly@gmail.com